

상담심리학과 졸업 강선혜 동문

인생의 갈림길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된 서울사이버대학교

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한 강선혜 동문은 현재 국민대학교
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동시에 서울사이버대학교 분당캠퍼스에서
임상심리사를 준비하고 있다.



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한 강선혜 동문

“살아온 날보다 더 긴 삶을 살게 될 텐데 아깝지 않을 정도로
충분히 가치 있다고 여겨질 만한 삶에 시간과 노력을 쏟고 싶
었습니다. 제가 바라는 자아실현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
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입니다.”

강선혜 동문은 원래 관광경영학을 전공하고 호텔에서 근무
하며 영업 관리를 했다. 그러던 중, 더 보람 있는 일을 하고
싶다는 생각에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었고, 인
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내린 결론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
이었다.

진로 변경에 대한 의사가 확고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분
야에 대해 기초 지식을 충분히 쌓을 수 있으면서도 해당 분
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학교를 찾았다. 일과 학업을 병행
할 수 있으면서 상담심리학과에 많은 교수님들이 있고 전공
관련 로드맵이 잘 마련돼 있는 것을 보고 서울사이버대학교
를 선택했다.

공부를 할수록 더 커지는 목표

“서울사이버대학교에는 자격증 취득에 관한 로드맵이 잘 정
리돼 있어 그것을 기초로 수강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.

또 지역별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어 첫 환영회에서 좋은 학우들
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
니다. 혼자였다면 해낼 수 없었을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
았습니다.”

강선혜 동문은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사가 되기 위
한 임용고사 준비와 서울사이버대학교 분당캠퍼스에서 임
상심리사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. 실제적인 역량을 갖
춘 상담교사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. 그 과정으로서 청소년
상담사 2급과 임상심리사 2급, 상담심리전문가 2급 자격을
단기 목표로 갖고 있다.

희망하는 직업은 전문상담교사이지만 교사가 되지 못한다
고 하더라도 상담심리 분야의 전문가로서 사회에 긍정적으
로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다.

“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상담심리를 공부했기에 교원자격증
이라는 또 다른 목표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제 인생은
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목표로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뤄서
서울사이버대학교의 졸업생으로서 학교의 위상을 더 높이
고 싶습니다.”